### 임 · 순 · 남 도농인력지원센터

# 부족한 농업인력 '해결사'

## 지난해 적기 농작업 위해 7100여명 지원… 농가 만족도 높아

임실군이 순창군과 남원시를 비롯해 임실·순창·남원의 조합공동법인과 함께 지난해 설립한 '(사)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작년부터 3년간 15억8,100만원을 투입하고 순창군과 남원시 각 지역의 조합공동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지역의 전략품목인 복숭아, 양파, 감자, 고추, 파프리카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도시의 유휴인력을 공급해 영농철 부족한 농촌현장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100여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대도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적기 농작업 실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농작업에 서툰 인력이 많아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현재는 숙련된 고급인력이 점차 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군은 올해도 다양한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안내로 1만여명 이상의 농작업자를 확대 모집해 농촌현장에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을 연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기간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농촌의 가장 어려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642-0192) 또는 홈페이지(http://www.agriwork.kr/inswork)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이 가능하며, 안전 및 농작업 체험교육을 받고 농가에 배정된다.

또한, 농가는 인건비와 중식을 제공하고 지원센터는 안전용품, 안전 보험, 농작업 체험 교육비, 교통비를 지원하며 원거리 구직자를 위한 숙식도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12일 임순여객자동차(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임실군, 버스 단일요금제 3월 시행

### 성인 1000원 · 학생 500원

임실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12일 임순여객자동차(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 구간 노선 및 거리에 상관 없이 성인 1,000원, 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적자는 군에서 보전해주며, 임순여객자동차(주)는 안전 운행, 승객보호, 친절한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임실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300원, 1km 초과시 마다 116.14원씩을 추가하여 최고 4700원을 지불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 구간 1000원으로 이용가능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연 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향교동 일원 생태휴식공간 만든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선정 국비 5억 확보… 10월까지 추진

남원시 관문이자 도심 속 공동묘지였던 향교동 일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시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인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환경생태계 복원사업을 시행하면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국비로 반환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묘지이장 및 토사반출 등으로 훼손 방치된 향교동 소재 23,000㎡ 부지를 생태 복원하여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생태체험공간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시비 부담없이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설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대상지는 남원시 관문이며 접근성이 좋아 건전한 식생환경 복원을 통해 다양한 생물서식 공간으로 조성되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녹색소통공간은 물론 생태체험·환경교육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프리미엄 소스 개발 시동

### '아딸과 사람들'과 협약… 떡볶이 소스 등 상품화

순창군이 지난 12일 떡볶이 등 분식전문업체인 (주)아딸과 사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소스제품 개발과 상품화에 나선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황숙주 군수와 (주)아딸과 사람들 이현경 대표, 아딸요리 연구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순창군은 떡볶이 소스 등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며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한다. 특히 대표 소스인 떡볶이 소스 등에 미생물과 발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프리미엄 소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제품의 제품화 및 안전한 농특산물 공급에도 노력한다.

(주)아딸과 사람들은 전국의 매장에서 공동개발제품을 활용하며 순창지역 브랜드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개발제품 생산에 순창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하며 순창지역 내 생산시설 구축에도 노력하게 된다.

군은 (주)아딸과 사람들이 지역 브랜드 소스개발과 사용으로 지역 홍보와 농산물 판매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 남원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 부정부패 개연성 차단 · 공직윤리의식 제고 초점

남원시가 올해 청렴도 1등급 최우수 청렴도시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의 기반을 다진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나 측정 결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위한 2016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대책은 ▲청렴문화 정착 ▲청렴의식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 모니터링 등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상대적 부패 취약분야인 공사·인허가 분야 업무별 청렴도 향상 과제 발굴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활동, 차별화된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내면화 등 부정부패의 개연성 차단과 공직윤리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춘 시책을 마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업무처리 과정의 비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백 e-시스템, 공직자 자기진단, 청렴 마일리지 제도 내실화를 통한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자 내부비리 Hot-Line 등 다양한 부패신고 채널을 운영하는 등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책으로 최우수 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다진다.

양성모 남원시 감사실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청렴도 1등급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로컬플러스

### 고창군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모집

#### 19일까지 10개 과정 205명 선착순

고창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과정은 오는 19일까지 10개 과정에 205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과목은 자격증반인 ▲한식조리사 ▲중식조리사▲책놀이지도사▲수납전문가▲캘리그라피▲생활미술(쉐비로즈)▲OA실무▲홈웨어 과정과 창업반인 ▲가죽공예▲손뜨개 과정이다.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명사진, 신분증 지참 후 고창군여성회관 1층 사무실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과목당 월 1만원이며 강좌별 재료와 교재비는 별도 부담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 수강료가 면제된다.

강좌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문의는 여성회관(☎063-560-8085)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고창군이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전까지의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도장의 분실, 허위 발급, 인감 위조 문제가 종종 발생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효력을 지니면서 사전등록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서명절차를 거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서명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군은 차량등록, 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실 내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장려해 보다 많은 군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경로당활성화사업 시행

고창군노인복지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2016년 노인연계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노인연계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고창군 관내 572개소 경로당 중 12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건강증진(태극기공, 건강체조, 레크댄스), 여가지원(노래교실, 음악치료) 치매 예방프로그램, 특별행사(어버이날행사, 생신잔치 등)를 지역네트워크 구축망(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자원봉사센터 등)을 연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안전 진단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국립공원 안전 大 진단을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 大 진단 대상은 공원 내 급경사지 9개소, 법정급경사지 4개소, 시설물(대피소, 야영장, 교량, 계단, 데크 등) 90개소를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점검한다.

12일까지 공원 내 급경사지 점검, 29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하며 3월15일까지 2차 점검으로 1차 점검을 통해 추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